

육아/직장 병행 수험생 10인의

REAL 공무원 합격수기

©메가공무원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인생
2막의
시작

Career Move~

경단녀
취업
성공



들어가는 글

시작에 늦은 나이가 어디 있나요?

제 2의 인생을 위해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

공무원 시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나이와 경력 무관하게 충실히 시험과목을 공부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채용시험이기도 합니다.

최근,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는 중장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서적은 제 2의 인생의 시작에 선 사람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불어 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합격한 10인의
솔직하고 생생한 수기를 만나 보세요.

이 책을 덮고난 후 느낄 ‘어쩌면 나도?’를 시작으로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만날 10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CONTENTS

육아/직장 병행 수험생 10인의 이야기

I

육아 병행 STORY

- | | | |
|---|---|-----|
| 1 | 육아로 포기했던 공무원의 꿈을 끝내 이뤄내다
2019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 5p |
| 2 |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본값으로 두고 공부하자
2023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 11p |
| 3 |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합격
2023 국가직 서울 일행(우정) 합격 | 17p |
| 4 | 산후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2023 국가직 경찰행정 합격 | 23p |
| 5 | 40대에 도전한 가장 공정한 시험
2023 국가직 직업상담 합격 | 29p |

6 기술직 합격이 오히려 쉬웠어요 37p
2021 지방직 일반농업 합격

7 1년 안에 승부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47p
2023 지방직 교육행정 합격

II

일 병행 STORY

8 안정적인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53p
2022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9 연고지 근무 30년 보장되는 직업 59p
2023 국가직 서울 일행(우정) 합격

10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65p
2022 지방직 일반행정(지방의회) 합격

육아로 포기했던 공무원의 꿈을 끝내 이뤄내다

#육아공시생
#다시 재도전
#하루 3번 공부하기



[2019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총 수험 기간 2년 4개월

“내 일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끝에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뭔가 집중하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공무원 수험을 다시 꿈 꾼 이유

결혼 후 수험 생활을 10개월 정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공부를 중단하고 육아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고, **내
일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끝에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었
을 때 남편의 동의를 얻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합격 전까지는 주변에 공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공무원 도전 사
실을 여러 군데 말하면 **만약 불합격했을 때에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 이를 최대한 감추
고 도전**했습니다. 부모님조차도 알게 되면 걱정하실 것 같아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사실을 말하니 다들 대단하다고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합격 후 공부한 사실을 늦게 말했다는 사실에 주변 지인들이 서운해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공부하느라 등원시킬 때 피곤해 한 이유가 있었구나'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주변에 공개하고 안 하고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직렬로

제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2018년)에는 행정학, 사회를 선택하면 어지간한 직렬은 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수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빨리 합격하는 직렬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 일할 것을 고려**해서 제가 해낼 수 있는 직렬을 선택했습니다. 접수할 때까지 고민했던 직렬은 **행정직**과 **세무직**이었는데요. 행정직은 모집인원도 타직렬 대비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세무직은 행정직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면서, '나중에 은퇴 후에도 세무 업무 쪽으로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집인원 많이 뽑는 행정직으로 선택하였고 현재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일단 들어가 보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직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일하는 곳이기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 맞고 잘해낼 수 있는 직렬을 선택**하세요. 동료 중,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다른 직렬 주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육아휴직 동안 다른 직렬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방법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여도 여전히 적성에 맞지 않는 직렬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점수가 낮다고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직렬이든 힘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에게 덜 힘든 직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하루 3번 공부법으로 시간 확보하기

수험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공부시간 확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아프고 하여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이 깨지고,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적었습니다. 육아맘이라 공부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 정한 기준은 하루 순공 5시간 이상이었는데요.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①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②어린이집 보낸 시간, ③재운 후 저녁시간 이렇게 세 개의 타임으로 쪼개어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5~6시에 기상 스터디를 이용하여 아침에 한두 시간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간 시간, 저녁 아이 재우고 공부 이렇게 공부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말에 신랑이 쉬는 날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8시간 이상 공부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날이 제일 행복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부 공시생은 남편의 도움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많이 도와준 신랑이 지금도 고맙네요.

추가적으로, 주부 공시생 분들은 집안일에 잠시 눈을 감고 주말이나 공부하기 어려울 때로 미뤄두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일과 공부 완벽히 함께 해내면 좋겠지만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는 집안일을 몰아서 해놓는 등 최대한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하루 루틴

저는 공부 스케줄 다이어리를 이용하여 시험날을 디데이로 설정한 뒤, 대략적으로 전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달, 일주일, 하루 씩 공부할 목표와 양을 세부적으로 정했는데요. 과목별로 시기별 학습법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국어, 영어는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은 공부하도록 반복 학습하였고, 초반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하며 모의고사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자주 접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어가

약했기 때문에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하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 행정학, 사회는 시험 전까지 기출과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번갈아 공부**했습니다. 주부 공시생이라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모의고사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과 이론을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기출문제라도 다 맞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기상 스터디 추천하는 이유

저는 **온라인 공부인증 스터디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스터디**를 하여 **새벽 5~6시 사이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펴고 오늘 해야 할 공부를 확인하고 영어 단어를 아침에 스스로 테스트하며 외웠고, 독해 한두 문제를 풀고 분석했습니다. 기상하기가 어려웠던 저는 온라인을 통해 공부기상 스터디를 활용하여 **하루 인증시간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만 믿으면 독이 된다

처음 공시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인터넷 강의만 듣고 복습을 소홀히 한 점이 가장 후회되는 점**이었습니다. 프리패스여서 강의는 많고 또 강의를 듣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어서 강의 듣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네요. 프리패스 기간이 끝나고 강의를 연장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족한 내용은 유튜브나 EBS를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들었습니다. 직장/육아를 병행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공부하고 외우는 시간 확보를 많이 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강의 도움을 받으시고 **한 번 전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기에 도움이 되었던 필살기

저는 수험 기간 1년 차까지는 프리패스로 강의를 듣고, 2년 차부터는 독학을 하며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들어서 전체적인 틀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외우고 실력을 다지는데 독학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암기과목에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은 **오답노트 정리**였습니다. 암기과목에 외울 내용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퀴즈 형태, 빙칸 만들기를 통해 계속 매일 스스로 테스트**를 했던 것이 암기과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과목이 약하신 분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 외울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가 방학이거나 아플 때 등 공부를 못할 때에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요. 그럴 때에는 **핸드폰으로 단어라도 외우고, 정리해둔 암기장을 옆에 두고 아이한테 가르치듯이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암시로 슬럼프 극복하기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40살이 되기 전까지만 합격하자.'** 스스로 다독이며 공부 다이어리에 일기도 쓰고, 공부법에 관련 책을 사다 읽으며 불안감을 낮췄습니다.

또한 **쉬는 날에는 온전히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가거나 지인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불안감을 낮췄습니다. 계속 공부, 육아, 집안일만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라 쉬는 날도 항상 가지면서 재충전을 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신나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게 짧지 않은 수험 기간을 버티게 해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합격 후 자신감이 생기다

공무원 현직 생활을 하며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큰 고민 없이 사줄 수 있다는 점**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보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도 뭔가 집중하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함께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요즘 공무원이 예전보다 인기도 떨어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공무원은 지금도 매력적인 직업임은 확실합니다. 육아시간과 육아휴직이 보장되며,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본값으로 두고 공부하자

#현직자 재도전

#5개월만에 합격

#자투리 시간 활용



[2023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총 수험 기간 5개월 (재시)

“육아를 한다고 해서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에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까워 재도전한 공시

저는 기존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결혼 및 출산을 했고, 휴직 후 복직을 하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육아로 인해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복되는 장거리 출퇴근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가정과 직장 모두에 전념하기가 힘이 들어 전출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출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렬의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직렬도 일반행정이었기에 큰 고민 없이 같은 직렬로 선택하였습니다. 일반행정이 모집인원도 타직렬에 비해 많기 때문에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직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전공 및 경력 등 관련된 직렬**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리는 것도 매력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자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는 힘들었고 혹시나 불합격했을 때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공부했습니다.

거꾸로 계획으로 5개월 동안 5개 과목 끝내기

23년 1월 육아휴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만 5개월 동안 5과목을 끝내기 위해 거꾸로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시험공부했던 내용이 일부 남아 있어 노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학습 경험을 통해 강한 과목, 약한 과목을 미리 파악하고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날 기준으로 하루에 봐야 하는 양을 정하고,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획을 짰습니다.** 1-3월까지 국어, 영어는 최대한 감각을 살리기 위한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요약 강의로 짧게 리마인드 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매일 조금씩 아침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암기과목은 한 번 볼 때, 최대한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두고 다음번에 볼 때 더 세심히 챙기려고 했습니다.

회독 주기 짧게 잡는 학습법

하루 순공 시간은 대략 5-7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해둔 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 시간은 국어, 영어 공부를 했고, (하루 일정

량 문제 풀기, 약한 부분 강의 또는 책으로 보충) 점심시간에는 주로 전한길 선생님의 강의를 틀어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사/행정법/행정학을 돌아가며 반복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다시 아이를 돌보곤 했지요. **주말에는 책상에서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어 암기 위주, 기출문제 앱 풀기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아이 낮잠 시간에는 밀린 강의 듣기 등)

1회독까지는 한 과목 씩 돌려서 빠르게 리마인드하려고 노력했고, 2회독부터는 벽들 쌓는 느낌으로 위로 얹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시험날 5과목을 다 봐야 하고 하나씩 돌리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최대한 회독 주기 를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하루에 5과목을 다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날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봤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는 어플로 문제풀이가 쉽게 가능하고 그걸 통해 암기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는 행정법을 우선해서 보고, 집에 와서는 아이를 재우고 누워서 어플로 한국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다가 궁금하거나 구멍 난 부분이 생기면 필기노트로 돌아가서 다시 암기했습니다.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글자 하나라도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텁이라면 텁일 수 있겠습니다. 차분히 앉아 책 보는 것 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일상 속 짹짬이 핸드폰 등 디지털 기기 내 어플 활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인강'

저는 인강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고 강좌에 따라 압축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전 시험에서 한국사 점수가 좋지 않았기에 이번에 합격하려면 무조건 한국사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가공무원에서 판매하는 티팩스(전한길 선생님, 신용한 선생님)를 구매했고 2.0부터 필노강해, 다지선다 등 다양한 강좌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사는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에 식사시간에는 항상 틀어 두고 대답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막판에 다지선다 책과 강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일부 남아있고 문제도 잘 풀리는 편이라 강좌는 기본 강의 외에 많이 듣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그 부분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면 기본값으로 두자

육아를 병행하는 수험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원, 아이의 고열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초반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계획된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짜증부터 났습니다. 또한 전업 수험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확보하며 공부를 하기에 이들과 경쟁했을 때 과연 내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본값으로 두자'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전업 수험생들과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시험과 관련된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날도 많았으나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했습니다.

합격생들이 합격하는 이유는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잘 알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빈출 개념들과 강사님이 강조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수 없이 내 것으로 만들고 가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육아를 하며 한 번씩 버거울 때는 시어른이나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육아 병행 수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달라질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TIP

자투리 시간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식사시간, 아이 채우는 시간, 아이와 노는 시간 등 책상에 앉아야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암기는 자투리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도 자막을 보면 저게 맞춤법에 맞는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외래어 표기 부분도 활용**해 보고 아이와 병원 가는 길에는 영어 단어를 플레이해놓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또 생활하다가 공부했던 부분을 떠올려 봤는데 헛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면 꼭 책에 가서 찾아 읽어보고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간 부분은 잘 안 잊어버리고 정말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전체 회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빨리빨리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다고 공부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출문제 풀이 어플 등을 켜 두는 등 아이와 놀아주며 틈틈이 눈과 머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역시나 가족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고, 남편은 직업 상 해외출장도 잦았습니다. 계획된 공부를 다 하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었고, 정해진 시간 동안 경쟁자들의 책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될까 우려되어 **초심을 떠올리며 재시 힘을 마음먹은 이유를 자꾸 되새기려** 했습니다. 저의 수험생활 동안 역시나 **가장 힘이 되어준 것도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합격하고 난 지금은 이제 멀리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어 정말 좋습니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 길을 달려 출근했었는데, **이제는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직장과 가정에 쓸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수험생활 과정은 굉장히 고될 수 있으나 열매는 정말 달콤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이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도전해서 달콤한 열매를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합격

#아이 셋 육아맘

#점심은 시리얼로

#아파트 독서실



“1년간 빵점짜리 엄마지만,
합격증만큼은 아이들한테 꼭 줘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공부했어요”

[2023 국가직 서울 일행(우정)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아이 셋을 키우지만 내 직업을 갖고 싶어!

아이를 키우면서, 제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현재 제 나이에 시작할 수 있는 건, 공무원 시험 뿐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했습니다. 처음 가족들에게 공무원 시험 도전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아이 셋 키우면서 1년 안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았어요. 1년간 공부에만 매진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이 셋 육아에 공부 병행은 힘들 거라는 의견이 많았지요. 최소 2-3년 장기전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중간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에 ‘1년간 빵점짜리 엄마지만, 합격증만큼은 아이들에게 꼭 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싶은 직렬을 선택해야 공부할 맛도 난다

처음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렬 선택에 있어 고민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직렬은 제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전문직렬의 경우 자격증을 요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정직렬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직렬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소신 지원하는 것이에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렬로 지원해야 공부할 맛도 납니다.**

스스로 위치 파악 후 시작한 학습법

2022년 노베이스 상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며 스스로의 위치 파악을 한 뒤,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점수는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문법이 취약하더라고요. 이처럼 각 과목별 부족한 파트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2022년 6월~12월까지는 기본서 인강과 교재로 학습했습니다. 한 달에 한 과목 씩 기본서 인강을 듣겠다는 계획으로 ‘영어(문법)→한국사→국어(문법 파트, 한자 한자성어 부분만)→행정법→행정학’ 순으로 수강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인강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교재도 기본서에서 기출문제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하루에 전 과목을 다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영어, 국어는 매일 1시간 30분씩, 월요일&화요일은 한국사+주요 과목, 수요일&목요일은 행정학+주요 과목, 금요일&일요일은 행정법+주요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주요 과목은 3시간, 이외 과목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쉬었습니다. **강의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기출문제 교재는 지방직 시험까지 최소 4번 정도 풀었는데요. 1회독 때에는 전체를 풀고 2회독부터는 표시한 문제들로 걸러서 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르는 건 별도 표시하여 다시 봤어요.

순공시간 최대한 확보하는 TIP

순 공부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 하다가, 점차적으로는 10시간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9시부터 **아파트 독서실을 활용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9시~4시까지를 절대적으로 확보하여 몰입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절대적인 공부시간 확보가 중요했기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아이들 어린이집 연락만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점심식사도 복도에서 우유와 시리얼로 간략히 해결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점심에 낮잠 20분도 꼭 자 주었습니다. 시리얼로 적당히 먹고 낮잠 시간을 확보한 것이 오후 시간 공부 집중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와 병행하다 보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후 9시부터 재운 뒤, 저도 10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시 공부하는 방식으로 순공시간을 채웠습니다. 해당 진도가 밀린 날에는 3시 반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 하루 학습 스케줄 ◆

- 7시 기상 아이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준비
- 8시 50분 아이 셋 등원 완료
- 9시 ~ 12시 영어, 국어 과목 학습
- 12시 20분 ~ 40분 낮잠
- 12시 40분 ~ 4시 주요 과목 (예: 행정법)
- 4시 ~ 10시 아이들 하원 후 씻기고 재우기
- 10시 ~ 2과목 (예: 국사, 행정학)

인터넷 강좌 선택 및 학습 방법

저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했기에 인강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합격후기들을 읽어보며 강사를 선택했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강의 위주로 결정했어요. 영어 같은 경우, 단어는 자신 있는데 문법 부분이 취약하여 매번 틀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영어 인강을 들어 보았지만, 조태정 선생님의 그래머 강좌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태정 선생님의 '리그래머 125' 강의를 두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만 반복하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 위주로 여러 강사님들 문제 위주로 풀었고, 왜 이게 답일까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한국사는 전한길 선생님 필노 강의로 들었고, 그 이후에는 더 짧은 강의로 부족한 파트를 보충하면서 들었습니다. 행정학은 신용한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행정학은 정말 방대해서 기본강의를 잘 따라가려고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책 옆에 딸린 문제도 풀고, 선생님께서 매주마다 시험을 진행해 주시는데 인강이지만 현장 강의처럼 똑같이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가짐

육아를 병행한다면, 중간중간 내 의지와는 다르게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생겨 공부에 지장을 받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느꼈는데요.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전체 가정보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점차 플랜 B를 생각하며 다시 계획 짜는데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항상 '어느 정도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가면 되고 계획은 다시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소트트랙 경기로 슬럼프를 극복하다

시험을 준비하며 풀이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중간중간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75점~80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 나 뭐 했나?'하는 자괴감도 들고 위축도 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았습니다. **넘어져도 세계 1등 한 대한민국 여자 계주를 보면서 '그래, 다시 하자! 본시험만 잘 보면 되지! 지금이라도 부족한 파트 알았으니, 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계획을 세워 공부했습니다.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 시험에 맞춰서 시험 보기 전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씩 짹 보고 가니 어렵잖이 기억나던 것도 빠르게 풀 수 있었고, 결국 본 시험에서는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시간 체크용으로 필요하니 꼭 보시길 하되, 이 점수가 본 점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절대 이 점수에 기분 좌우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한 파트 체크하는 용이다 생각하시고 해당 부분 보충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시험은 본 시험입니다.**

가족 덕분에 합격하고 가족 덕분에 행복했어요

지칠 때마다 가족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재워주고 돌봐 주는 동안 밀린 복습을 했고요. **스트레스는 한 과목 학습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과 과자파티를 하며 해소**했습니다. 하루의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놀고 저녁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꼭 일 년 내에 합격할게!'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커 가는 황금과 같은 이 시기를 제 공부로 더 허비하지 않도록 독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결국에는 '될까? 합격할 수 있을까?' 했던 일을 1년간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니

합격 후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1년간 저와 함께 고생한 가족들에게 합격증을 보여줄 수 있어서 무척 보람찹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비록 적은 인원수를 뽑지만, 정성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끝날 때까진 결과를 모르는 것이니,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수험공부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응원합니다!

산후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맘시생 열풀타 스터디

#지피지기 백전백승

#오직 나를 위한 합격



[2023 국가직 경찰행정 합격]

총 수험 기간 3년

“언젠가 있을 성공에
이 정도 힘듦은 트로피라 생각하자고
마인드컨트롤을 많이 했어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한 공무원 시험

아이를 낳고 약간 산후우울증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생활도 성실히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를 낳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서는 젖도 줄줄 나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젖먹이 아기를 제외하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직장을 병행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얘기했고, 그 후로부터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아이가 자거나 기관에 가면 적적한 마음에 인터넷 강의를 한두 강의 씩 보는 것으로 시작했

는데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반 년 간의 가정 보육에 너무 지쳐 남편에게 일하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고, 언니와 남동생, 친한 친구 두 명에게만 말했습니다. 제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만 잘 케어하면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밝히면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림과 육아도 잘해내고 있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꾸준히 잘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가에 공무원 시험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추후 양가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보실 때 '**애 엄마가 공부해서 그런다**'라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험 준비를 알리니 아무도 저에게 특별히 기대하거나 부담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TO와 합격선을 분석한 직렬 선택

최근 몇 년 간의 대략적인 TO를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 국가직 일반행정직은 TO가 5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행정직보다 TO가 많았던 경찰행정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전년도 TO와 합격선을 분석하고, 해당 직렬이 본인과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렬을 선택할 때 꼭 이전 시험의 TO 및 합격선을 분석하여 보다 가능성 있는 직렬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년간의 긴 수험생활

첫 1년은 기본 강의에 치중했고, 2년 차부터는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

하고 그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 순간, 지금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주 틀리는 문제 패턴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영어를 예로 든다면, 2년 차부터는 어휘력과 독해에 자신이 있는 상태가 되어 그 이후인 3년 차 때부턴 구문에 치중하며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구문 책을 3~4회독 했습니다. 육아를 병행 하다 보니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한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고 다른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6~8시간 정도 공부했고, 주말에는 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주중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외우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뇌를 깨웠어요. 이후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배웅을 한 뒤, 아침 식사를 하였고, 아이들을 등교 시키며 커피를 사 오는 작은 여유를 가졌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집중하여 공부를 했고, 점심 식사는 잠깐 앉아 간단히 해결했어요. 오후 3시부터는 아이들을 꾹업하고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엔 근처 카페에서 자습을 했고, 학원에 가지 않을 땐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간혹 놀이터도 데려갔는데 그땐 외울 거리를 가져가서 틈틈이 외웠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을 기다리며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저녁을 먹인 후에는 뒷정리를 하였고, 아이들의 공부를 바주거나 등교 및 등원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주말

아이들의 인격과 학습 습관, 부모와의 유대가 생기는 나이(8세, 6세)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하며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남편도 주중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했고, 일요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줄 때 잠깐 집중하여 밤공부를 했고, 일요일은 새로운 한 주를 위해 일찍 잠들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라

처음에는 독서실도 다녀봤는데, 동네에 오며 가며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동시간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안방과 아이들 자는 방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며 공부했어요. **맘시생 열풀타 스터디**를 하며 많은 분들이 밤공부를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밤공부를 하면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이 크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는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암기하는 새벽 공부였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시간대를 꼭 찾길 바라요. 체력이 약한 편이라 졸리거나 딴 생각이 들면 쪽잠을 자거나 눈이라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효율이 더욱 올라가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가정 보육을 하게 되면 공부에 더욱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항상 정상 컨디션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육아 병행 공시생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 이동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림질을 하거나 식기세척기를 돌리는 시간에는 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요**. 국어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자성어, 어법, 문학 등 기본 이론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짬짬이 공부하는 것들은 장기기억에 저장**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서, 이에 대한 마인드컨트롤을 많이 하며 공부했습니다.

공부에도 완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할 공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공부의 차이를 두어야 하고요. 특히 영어와 국어를 먼저 잡아야 하는데요. 그 뒤에 암기 휘발성이 강한 행정학과 행정법에 옮인했습니다. 한국사는 무조건 전한길

선생님의 기적의 특강을 추천드려요. 시험이 임박할 때 빠르게 기적의 특강을 여러 번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서러웠던 순간들, 결국엔 합격

사실 공무원 준비를 권유했던 남편조차도 저의 공무원 준비를 애들 없는 노는 시간에 하는 '취미생활'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주부 스터디에서 힘껏 서포트 해주는 남편들과 비교하며 화도 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 언젠가 올 나의 합격은 온전히 나의 노력이다', '100% 내가 잘 해서다.'라고 생각하니 전혀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1타 강사의 말처럼, '언젠가 있을 성공에 이 정도 힘들은 트로피라고 생각하자'고 마인드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말하면서 푸는 편이라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는 시간에 엄마, 언니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편의 아침밥은 꼭 해주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나도 할 말이 있게 되고, 시댁에도 떳떳할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한 것을 차리지는 않더라도 간단한 샐러드나 구운 고기, 삶은 계란 등을 준비했어요.

시댁에 공무원 준비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있거나, 시어른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실 때가 가장 난처했습니다. 시댁에 방문하게 되더라도 꼭 하프 모의고사를 쟁겨 가 혼자 있는 시간에 풀었고요. 한국사 필기노트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가직 3주 전,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셨어요. 굳이 우리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모셔온 남편의 배려 없음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며느리와 둘이 있는 게 좀 멋쩍으셨는지 산책을 자주 가셨고, 아버님이 안 계시는 시간에는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을인해도 모자를 시기에 지금 뭐하고 있나' 속은 많이 상했지만 올해 안되면 내년에 시험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날 아침까지도 준비가 안된 것 같아 시험 보러 갈지 고민했었는데, 결국 합

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인정받는 행복감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가장 큰 변화는 저에게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주부가 되고 나니 '결혼 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사무보조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격 후 '제 일'이 다시 생겼고, 주변에서도 '애를 둘 키우면서 어떻게 합격했냐',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냥 '아줌마'였다면 이렇게 인정받을 일이 또 있었을까요? 애 키우며 열심히 살았다고 알아주는 분위기에 지금은 너무 뿌듯합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특별히 대단한 것을 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빠르게 채워 넣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시험입니다. 특히 주부라면 공무원 시험에 꼭 도전하시길 바라요. 10살만 되어도 아이들은 엄마 손이 크게 필요한 나이는 지나갑니다.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보다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40대에 도전한 가장 공정한 시험

#행정학 전공
#사기업 10년
#실제 수험 기간_6개월



[2023 국가직 직업상담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8개월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일행 대비 공부량이 적고 커트라인도 낮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 더욱 수월합니다”

나이, 경력, 학벌을 보지 않는 공정한 시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10년간 일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어릴 적 꿈이었던 공무원이 되고 싶어 대학 시절 행정학을 전공하였으나, 어려운 집안 사정 상 졸업 후 바로 사기업으로 취업을 하였고 육아와 출산으로 10년 다녔던 사기업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저에게 귀한 경험을 주었고 보람이 컸지만, 어릴 적 꿈이었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 싶어 40대의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나이, 경력, 학벌을 보지 않는 공정한 시험이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는 결심을 남편과 의논을 하였고, 남편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지원에는 물질적 지원(프

리패스비, 교재비, 스터디 카페 비용 등)과 신체적 지원(집안일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 외 시댁과 친정 가족에도 시험 준비 사실을 알리고 시험 치기 6개월 전부터는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합격할 수 있는 비법으로는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카페에는 맘시생 분들의 고민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집안 일과 각종 대소사를 쟁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이 맘시생들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베이스 40대 주부가 직업상담직을 선택한 이유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1년, 직업상담사 2급 준비 2개월, 수험 기간 6개월 (2022.10~2023.03)**을 거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고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공부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 과목 1회독 정도 진행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개월을 투자하였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험 기간 6개월을 통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노베이스였지만 직업상담직에 지원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인 직렬
2. 거주지 근무가 가능한 직렬

직업상담직의 전공과목인 노동법(기본서 기준 약 400페이지)과 직업상담심리학(약 200페이지)은 행정학, 행정법에 비해 양이 상당히 적어서 **시간이 부족한 직**

장/육아 병행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하기 수월한 직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국에 지청과 센터가 있기 때문에 희망 연고지를 기준적 배려하여 발령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였을 때, 직업상담직이 가장 적합해 보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일반행정직에 비하여 비교적 공부량도 적고 커트라인도 낮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직렬을 선택하실 때 기준적 경쟁이 적으면서 공부량이 적은 직렬을 선택하시는 것이 빠른 합격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렬 선택에 있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부 시간이 적은 병행 수험생들은 고용노동직 및 직업상담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맘시생 공부 시간 확보 TIP

육아를 병행하는 맘시생들에게는 공부 시간의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사립 유치원 추천, 국공립 유치원은 일찍 마치고 방학이 김)에 최대한 길게 맡기시고 학원도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학이 긴 편으로 방학 동안에는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하루 2,500원의 비용(점심과 간식 포함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오히려 방학 동안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보육 시설 또는 학교에 보내더라도 학교 행사 참여 등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대신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사 일을 청소는 최소화하고 음식 조리와 설거지는 필수적으로 하는 등 가사 일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에는 가사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밀키트와 반찬 사 먹기로 해결하고, 나머지 가사 일은 남편이 도맡았습니다.

엄마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다

아무래도 수험을 시작하게 되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공부를 시작할 당시(2022년) 9세, 7세로 완전히 어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다행히 공부하는 엄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수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응원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은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남편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였습니다.

‘국/영/한 베이스 UP → 전공과목’ 순서로 공부하기

일단 수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성격과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험의 전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3개년 기출을 풀어보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와 자신의 기초 실력(베이스)를 파악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강점과 약점 과목을 알아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9급의 경우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분량에서 출제가 되고 20문제 중 1~2개 또는 3~4개가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5과목 중 영어 과목이 실력을 쌓기가 시간이 걸리는 편으로 저 같은 경우 토의 900점을 받았었고 기출을 풀었을 때 85점이 나와서 영어가 베이스가 있어서 영어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기출을 풀어 보았을 때 가장 어렵게 여겨진 과목은 한국사로 수험 기간 내내 공부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험 초기에는 5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지 말고 국, 영, 한 세 과목을 우선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고 판단된 후 전공과목 2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 영, 한 세 과목도 처음부터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영어부터 공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과목을 공부를 하면 갑자기 시작한 공부가 하기 싫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국, 영, 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연말에 직렬별 TO가 나오는데요. 국, 영, 한을 착실히 공부해두면 TO를 보고 다른 직렬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을 올린 후 국, 영, 한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감을 유지하고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중 3개월은 국, 영, 한 공부, 2개월은 전공 공부, 1개월은 마무리 전 과목 공부**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달 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전 과목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었습니다.**

구체적인 인강 학습 방법

저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노량진은 왕복 2시간 거리라서 현강은 포기하고 인강(메가공무원 프리패스)를 수강하였습니다. **인강은 주로 집에서(저녁과 밤)에 듣고 복습과 정리 등 공부는 스터디 카페(낮)에서 했습니다.** 전 과목 모두 올인원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기출은 시간이 없어서 수강은 하지 않고 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한국사가 취약과목이라서 한국사만 올인원을 두 번 수강했습니다. 10~12월까지는 국영한 올인원과 기출을 공부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위주로 문제풀이 감각을 익혀 나갔습니다. 1월~2월 무렵, 노동법과 직업상담심리학은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서 올인원을 풀면서 기출도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사 모의고사는 고종훈 선생님 강좌를 추천합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이지 않으면서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라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이유진 선생님의 백일기도 모의고사가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업상담심리학은 김형준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을 모두 추천합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특히나 적중이 많이 되었는데요. 평소 강조해 주셨던 사무지각적성이나

스트레스 접종 등의 문제는 1초 컷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루 6시간 순공, 짬짬이 인강 듣기

저는 평일에는 주독야경(낮에 주로 공부하고 밤에 주로 집안일) 하였는데요. **스터디 카페에서 6시간 순공, 짬짬이 2-3시간 인강을 듣는 것이 저의 하루 루틴이었네요.**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서 없는 시간인 오전 9시에 스터디 카페에 도착하여 영어 어휘 공부를 30~40분 정도 매일(6개월간) 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매일 두 과목씩 (첫째 날은 국어+영어, 둘째 날은 국어+ 한국사, 셋째 날은 한국사+ 영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월~2월은 영어 어휘 30분, 국영한 모의고사 10문제씩 풀기와 복습 1시간, 노동법과 심리학을 4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3월은 영어 어휘 30분,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 심리학을 모의고사 풀기와 복습 등 각 1시간씩 할애해서 공부하였고 인강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순공 6시간을 채우며 공부했습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 5~6시 경, **아이들이 TV 시청하거나 게임하는 시간에 인강을 수강**하였고, **아이들이 잠에 든 이후인 밤 10~12시에 또다시 인강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은 남편이 돌보면서 **토, 일요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순공 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운동, 저녁 시간은 저녁식사) 스터디 카페에서 매주 공부한 것을 정리 복습**하였습니다.

약한 암기력 보완하는 방법

사람들마다 각자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암기력이 떨어지는 대신 이해력이 높은 편**이라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사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만들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공과목의 난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동법에 기출되지 못했던 판례 문제나 심리학의 직업카드 활용방법 문제는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가 베이스가 있어서 솔직히 적은 공부 시간과 수험 기간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이라고들 하지만 역으로 한 번 실력을 쌓으면 실력이 잘 떨어지지 않기에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카페와 걷기, 사우나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전업 수험생들 보다 공부시간이 적어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공부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평일 순공 시간 6시간을 10시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부 시간이 적은 것이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스터디 카페의 경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스터디 카페의 면학 분위기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공부하다 보니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디즈 의자가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니 허리 통증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스터디 카페에 가는 길에 걸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잠시나마 걷기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음악을 들으니 행복함을 느꼈고,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떨어짐을 느꼈을 때에도 힘들었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엔프스 비타민) 또한, **주 1회 사우나**에 가서 피로와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내면서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 뿌듯하고 다시 저 자신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오랜만의 공부가 즐겁고 저 자신만의 시간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기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있다고 공무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력을 활용하여 공부하면 떨어진 암기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맘시생 분들 모든 것을 다 잘하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가사 일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직 합격이 오히려 쉬웠어요

#창업보다는 취직을
#노베이스 기술직
#종자기능사 취득 병행



[2021 지방직 일반농업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6개월

“아기 엄마, 누구 엄마라고만 불리다가
다시 제 이름이 불리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출근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공방&카페 사장님에서 공시생이 된 사연

원래 공방&카페를 운영하였으나, 둘째 임신을 하니 컨디션이 나빠져서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안 하게 되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다시 가게를 시작하려고 해도, 도저히 애 둘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게 일에 100% 전념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 **창업보다는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가 둘 있는 엄마에겐 취업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간호직을 준비하던 친구의 권유로 공무원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고, 4년제 간호대학교도 염두에 두었는데 그보다는 **4년 안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 쪽이 빠르겠다는 판단**이 서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숨진다고 숨겨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 사실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공무원 되기 어렵다는데, 애 키우는 것에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들도 ‘공무원이 되기 쉽나?’면서 ‘일단 공부를 한다니 말리지는 않겠지만 조금 하다가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모두가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노베이스도 성공한 기술직 공무원 합격

제가 수험을 시작하며 느낀 바로는 **‘기술직 합격이 오히려 쉽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몰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 충남의 경쟁률은 4:1이었고, 다른 지역도 10:1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빠른 합격(최소 1~2년 정도)을 원했고, 객관적으로 행정직 쪽으로 합격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직렬이 인원은 적게 뽑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낮고, 합격 점수도 일반행정에 비해 낮았기에 기술직으로 선택했습니다.** 관련 전공 및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기술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보건직, 농업직과 산림자원직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기능사 자격증은 3점, 기사 자격증은 5점 가산점을 줍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농업직과 산림자원직 두 직렬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종자기능사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전공과목과 공부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병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직은 2월에 보통 공고가 나는데, 그때 뽑는 인원을 보고 더 많이 뽑는 쪽으로 직렬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해에는 농업직이 더 많이 뽑아서 농업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기술직이 처음에는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으나, 농업 전공과목들은 몇 부분 빼고

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ex. 유전 파트) **저는 30살에 시작했고, 아예 노베이스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시절 영어 전공이었으나, 3개월 준비한 첫 시험에서 영어 과락이었을 정도로 노베이스였지요. 저처럼 빠른 합격을 원한다거나 공부에 크게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뽑는 인원이 적더라도 경쟁률이 낮아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기술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직보다 나은 기술직의 장점들

행정직이 많이 뽑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큰 것 같았지만, 그만큼 고득점자도 많고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꼭 모집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행정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 자체는 많이 뽑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일반행정은 건설, 청소, 농업, 환경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부서도 많고 다양하게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오히려 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행정직처럼 발령 날 때마다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저의 경우, 발령이 나도 농업 관련 일이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농업직은 읍면동, 구청, 시청 등 갈 수 있는 곳**가 정해져 있지만,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할 부담감이 적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은 벽이 느껴지지만, 사실 농업직 합격하고서 일해보니 **생각보다 해당 직렬 전공한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일은 들어와서 배우면 됩니다.** 농업직에서 쓰는 용어가 처음에 생소하지만 그것도 금방 적응합니다.

이처럼, 기술직에도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행정만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직렬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85점을 목표로 공부하다

저는 처음 기술직을 알게 된 후, 지역별 최근 경쟁률과 합격선을 찾아보았습니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90점 미만이더라고요. **최소 80점을 받으면 합격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과감히 버릴 부분은 버리고 챙길 부분은 챙기는 등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무조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 합격한 순간을 상상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6개월을 공부한 뒤, 첫 지방직 시험에 응시한 결과는 70, 35, 90, 80, 80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어와 영어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한국사 및 전공과목 2개는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문제 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시간이 부족했기에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했었고, 첫 지방직 시험 이후, 8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는(6개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없는 국어와 영어에 집중**했습니다. 강의 듣고 문제풀이의 반복이었습니다. 국어 35%, 영어 65% 정도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 시험 점수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평균 80점, 전공과목 평균 85점, 가산점(종자기능사) 3점으로 총 평균 85점이었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평균 80~85점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균 점수를 세워 놓고 보니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더라고요. 영어는 문법 어휘 다 맞기, 국어는 사자성어 파트는 생략, 전공과목 중에서 강의 심화과정은 과감히 생략, 문제 풀이에 집중 등 본인이 채워야 할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2월에 채용 공고가 뜨면서 전공과목을 정했고, **남은 4개월 동안 전공과목의 기본 인강 및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단기간 집중암기'**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하루 평균 13시간씩 공부하였고, **막히는 부분은 일단 이해는 안 되더라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2월부터는 전공과목에 집중했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도 놓지 않고 암

축 강의를 듣거나,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인강 수강 먼저, 이후 문제 풀이

제가 사는 지역은 학원 인프라가 부족하기도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자유자재로 공부가 가능한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서 토대를 닦았습니다. 하루에 몇 강씩 할당량을 정해놓고 공부했고, 주말에는 공부했던 부분을 책을 보면서 복습하는 식이었습니다. 1.2배속~1.5배속으로 들으면서 시간 절약도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빠르고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게는 인강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8월부터 1월까지는 단기간에 하기 힘든 영어 및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는데요. 영어는 프리 패스를 수강하며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표했던 어휘와 문법은 다 맞았으나, 독해에서 많이 틀려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 한국사의 완성은 전한길 선생님입니다.** 일단 강의가 즐거웠고, 특히 필기노트가 최강입니다. **무료 강의 이벤트도 많아 유용히 활용했고,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버려도 아직도 필기노트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 관련하여, **농업직 강사는 몇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강사분들마다의 스타일이 있기에,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강을 위주로 들었고, **인강을 다 듣고 나서는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기본강의가 끝나면,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풀이도 1~100p 풀기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과목은 그때마다 정해서 했습니다. 월요일은 국어, 영어 문제풀이, 화요일은 영어, 한국사 문제풀이, 수요일은 전공과목만 문제풀이, 목요일은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풀이, 금요일은 전공과목, 영어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습했고, **막판 3개월 시점부터는 매일 5과목을 고루고루 풀었습니다.**

삶의 패턴을 최대한 단순하게

수험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삶의 패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며 **인간관계는 최대한 심플하게, 약속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했고, 주말에도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공부하였습니다. 애초에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겐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집안일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최소한의 육아 외에는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최대한 다른 곳에 정신이 쓸리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첫째 13개월, 둘째는 임신 중이어서 아무래도 육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이르지만, 공부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냈고(9시~4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타지에서 혼자 독박 육아다 보니, 집안일도 신경 쓸게 많았고 아이도 케어해야 했기에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맘시생 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아이들도 적응을 하고, 그 어린이집 보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시간이 나오니까요.** 낮엔 애들 보고 밤엔 공부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수험생활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무리해서 페이스를 올리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인 9시~4시(점심시간 30분 제외하고 6시간 반) + 저녁 남편 퇴근 후 1~2시간 정도 총 8시간을 공부했고, 주말에도 오전 3시간, 오후 3~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순공 시간입니다. 막판 시험 3개월을 앞두고서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고(저녁 먹고 7시 하원), 남편 퇴근 후 저녁을 차려준 뒤, 자기 전까지 공부하여 총 13시간 이상씩 순공량을 채웠습니다.

엄마이기에, 주말에는 사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가서 오히려 평일보다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어려운 파트들을 미리 공부해 놓았고, 주말에는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틈틈이 작은 포켓 노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고, 아이들 아파서 입원할 때도 요약집을 챙겨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시험기간 3개월 전부터는 주말에도 남편이 온전히 육아를 담당해 주어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고, 공부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속상한 엄마

아이들이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리기에 자주 아파서 결석이 잦았었는데요. 그땐 아예 공부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남편도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이 아프면 온전히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그땐 틈틈이 요약집, 어휘 단어집 정도만 챙겨서 공부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자는 시간에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써서 이어폰으로 인강 듣곤 했어요. 공부 자체가 모두 중단되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해야 하다 보니, 그게 참 당연한 거지만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병행은 아이가 아프다든지 집안 행사라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잘 때 이어폰으로 인강 듣기, 곳곳에 포스트잇 붙여 놓고 지나다니면서 훑어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오로지 '합격'하겠다는 마음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공부했는데 포기하거나, 떨어진다면 정말 상황이 짠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넘어갈 때 즈음에는,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합격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합격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주말에 너무 힘들 땐 가족들과 캠핑 가거나 여행 가는 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공부가 안될 땐 복습 위주로 머리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허리를 빼끗해서 누워만 있을 때도 누워서 인강 듣거나 환경에 구애 받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기보단,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인간관계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타지에서 살다 보니 아는 사람이 없었고, 관리할 관계도 떄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아니면 육아, 집안일 이렇게 단순한 환경**이었습니다.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가 재미있기도 해서 크게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인간관계가 심풀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 많으면, 그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공부시간은 줄어듭니다.

남편의 믿음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도 남편의 응원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험 준비 기간 동안, 남편이 연차도 자주 쓰고 아이들을 돌봐 주는 시간도 많아서 맘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할 수 있다고 지지해 주고, 믿어주고, 그만큼 행동으로도 도와주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 정말 가성비 좋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1년 반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으니 들인 노력 대비 최고의 효율**이라네요. 공부하는 데 쓴 총 금액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 달라진 나의 삶

평소 저만의 일(공방, 카페 사업)을 해오다가 육아하며 주부가 되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었는데, 합격과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아기 엄마, 누구 엄마라고만 불리다가 다시 제 이름이 불리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출근하는 자체가 일단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애 둘 키우면서 합격했다고, 가족과 친척 분들이 엄청 축하해 주었고, 지인들도 사실 이렇게 금방 합격할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무스펙 무경력인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월급**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호봉 쌓이면서 점점 월급은 오르니까요. 저는 따로 **가족수당**도(배우자, 아이 둘 = 월 12만 원) 나오고 **복지 포인트**도 더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도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도 자유로운 편**이고, 최근 제가 아팠었는데(초기 암) **회사 보험으로 암보험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너무 좋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일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기 키우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격하니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평생직장을 몇 년의 수험 기간만 인내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박봉이고 힘들고 등등 말이 많지만, 사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 엄마라면 더더욱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전문직 아니고서는 다시 취업하기 힘들고 경단녀가 되니까요. 수험 기간은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달콤한 결실은 맺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 각오하고! 몇 년 바짝 공부한다면, 정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안에 승부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프리랜서→공무원

#교육행정직 도전

#1년 단기 합격



[2023 지방직 교육행정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시작도 전에 덜컥 겁내지 말고,
한 번 시작해 보세요.
할 만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적합하여 선택하게 된 교육행정직

기존에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육아휴직이 없고, 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향후 복귀하게 된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오후~밤 시간대 근무였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무원은 출산, 육아 관련 제도를 사기업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직업의 안정성 및 육아 병행**이 다른 직업보다는 **수월**하기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행정직을 선택한 이유는 퇴근시간 때문**입니다. 교육행정직은 주로

학교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시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저는 학원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과 목이 흥미롭게 다가와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이도 양육해야 하는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마음가짐

처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다짐은 **‘무조건 일 년 안에 승부 보자’**였기 때문에, 일부러 주변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을 알리고 연락과 약속 등에 대한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육아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의 도전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면서도 제 합격에 100% 확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조차도 1년 안에 합격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주변에 알림으로써,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 약속을 최대한 줄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수험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1년만 힘들면 되지’**라고 결심하고 시작하니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보고 시작했으면 스스로 나태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활을 했던 지난 1년 동안 사실 인간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을 돌아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맞고 틀리느냐’에 대해서만 일희일비하며 몰입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행동은 남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요. 집안일을 하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과 조바심에 꼼꼼히 공부하지 못하고 진도 나가는 데 급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목 별로 목표 점수를 세운 뒤,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 그 점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남들이 아니라 '내 점수'에 초점을 맞추니 이후부터는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육아와 공부의 균형 맞추기

수험을 시작하며 가장 고민되었던 점은 **육아와 공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육아, 공부 둘 다에게 나의 100%를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시간 분배 그리고 나의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스위치를 만들었는데요.** 하루를 새벽/오전/오후/저녁/밤으로 나누어 활용했습니다. 저에게 **새벽과 오후, 밤 시간대는 오롯이 공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었고, **오전과 저녁은 가정에 충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나누어 해당 시간대에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니, 오히려 효율이 올라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열심히 짠 공부 계획이 다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를 정도는 계획 없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주간에 **공부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계획 없는 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공부 계획을 다 달성했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날 복습하면 되니까요.

명심해야 할 점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오늘 혹은 이번 주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다시 일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운 뒤,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일 혹은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수십 번도 더 계획이 틀어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순간순간 무너지지 마세요. **얼른 다시 돌아와 내 페이스대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기/월/주/일 세분화 목표 수립

최종 목표는 1년 안에 전 과목을 완성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분기/월/주/일로 세분화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분기 목표 (3개월 단위)

- 큰 목표로 충분합니다. 과목별로 끝내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ex) 7-9 이론 강의(기본+심화) 끝내기 / 기출문제 시작

*월 목표

- 분기 목표보다는 세세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ex) 한국사 40강까지 듣기

*주 목표

- 어떤 과목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ex) 월 수 금: 한국사 3시간씩 총 9시간

*일 목표

- 하루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시간 분배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ex) 오전 5-6시 하프 모의고사, 6-7시 영단어 암기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분기 목표**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 목표, 주 목표, 월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 해도 다른 시간을 끌어다가(휴식시간) 써서라도 꼭 분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분기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1년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병행 수험생 시간 활용 방법

시간이 부족한 일/육아 병행 수험생에게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전공과목을 보고 **조금이나마 흥미가 있거나 배경지식이 있는 과목/직렬을 선택하여 고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평소 관심 있던 과목/직렬을 선택한다면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 방식은 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인강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단과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과 강좌는 이동시간이나 잠깐 뜨는 시간에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한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복습하고 회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전한길 선생님의 필기노트 앱축 특강/기적의 특강 등의 단과 강좌를 활용하여 회독했습니다. 2배속으로 최소 5번씩은 들었는데 꽤 효과가 좋았어요.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하며 고정적으로 실천했던 것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만큼 하루가 길어 시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절대적 시간 확보가 간절했기 때문에 잠을 줄였고, 아이가 일어나기 전 새벽과 아이가 잠들고 난 이후의 밤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매일 새벽 기상 후, 영어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기왕이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을 새벽시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영어 하프 모의고사, 또는 영어 단어 암기 등입니다. 그래야 **새벽에 내 몸을 일으킬 동기부여**도 되고, **새벽 기상을 습관화**하기 좋습니다.

하루 순공시간은 새벽 5시~7시 (2hr) / 오전 10시~12시 (2hr) / 오후 12시~3시 (3hr) / 저녁 9시~11시 (2hr) 이렇게 총 9시간이었고요. 상황에 따라 더 적게 하거나 더 많이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하루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어서 공부했습니다. 또 남은 하루는 주간에 끝내지 못한 공부를 좀 더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암기하면 효율성 UP

하루 일과 중 틈틈이 주어지는 **10분, 20분의 짧은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동시간이나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킬 때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등의 짧은 시간에는 주로 암기를 했는데요. **제한 시간이 있으면 효율이 더욱 높아지듯,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얼른 암기를 해야 하므로 더 잘 외워졌던 것 같네요**. 언제 나에게 작은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니, 전한길 선생님의 포켓 암기노트나 영단어장, 그리고 다른 과목의 암기노트(직접 만든 것도 좋습니다.)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나이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합격 후 해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작도 전에 덜컥 겁내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정적인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직장/육아 동시 병행
#사업가에서 공무원으로
#1년 2개월 단기 합격



[2022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2개월

“하루를 알차게 보낸 뒤, 느낀 만족감을
매일매일 딱 365번만 느껴 보세요.
합격이 손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사업가 아버지에서 공시생이 되기까지

저는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원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한 후,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때까지 걱정 없이 일하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늦은 나이임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가족을 둔 점도 도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아내와 두 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줄 것 같아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1년 2개월간의 수험 기간 동안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아내도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었습니다.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준비 사실을 알렸는

데요. 이를 알게 된 주변인들은 모두 저를 응원하며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수험 생활 도중, '잘 되어 가냐'는 친구의 연락을 받을 때면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공대 출신이지만 일반행정을 선택한 이유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엔 기술직 준비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TO도 적을 뿐더러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느릴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행정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제 성향 상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든 갈 수 있는 일반행정직이** 기술직보다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국가직 시험 때는 소수직렬인 출입국관리직을 공부했었고, 결국 합격은 지방직 시험 일반행정직으로 합격하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성향에 맞는 직렬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던 공무원이 되더라도 성향과 맞지 않아서 시험을 다시 보거나 일찍 의원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꼭 자신과 맞는 직렬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엔 아이들 등하원, 저녁엔 일 병행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간 시간이 저에게는 공부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했고, 9시에 등원을 시킨 후,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공부했고, 오후 4시에는 두 딸을 하원 시킨 뒤 같이 놀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아내가 퇴근하는 오후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영어 과외를 4개 병행하며 일을 했고, 일을 마치면 오후 11시가 되어 집에 돌아와 바로

잠드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20대 때처럼 3~4시간 자고는 이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하루에 꼭 7시간씩은 취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토요일에는 10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부족한 파트의 인강을 발췌해 몰아서 들었습니다. 저도 일요일 하루는 가족들과 보내며 휴식을 취했어요. 공무원 수험은 장기간 마라톤과도 같은 생활이기에 휴식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페이스 조절을 하며 육체/멘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남들은 공부를 할 텐데'라는 생각보다는 '**이 휴식이 다음 주를 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에게 시간을 맞추세요

아이들을 돌보며 일까지 병행하니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6시간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분 단위로 조개 가며 소중하게 사용했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생활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리한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운다면, 쉽게 지치고 멘탈 관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적은 시간이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공부계획을 지킨다면 어느덧 목표에 근접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은 한자성어 책이나 영단어 프린트 등을 활용해 공부했습니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 많은 공부량이 된다는 걸 공시 생활을 하며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기의 영역과 이해의 영역

수험 목표는 당연히 '단기 합격'입니다. 만약 '2년 안에 붙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스스로 시간이 아직 많은 것처럼 느껴져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의 합격'을 목표로 잡으세요.**

저는 '암기의 영역'과 '이해의 영역'을 나눠서 수험 목표를 세웠는데요. **암기의 영역**이란 '**선택과목+한국사+영어 단어+국어문법(한자성어 포함)**'을 말하며, **이해의 영역**은 '**영어 독해+국어 문학/비문학 독해**'를 말합니다.

먼저 **암기의 영역**으로는 **인터넷 강의와 함께 기본서를 1회독 하며 빠른 시간 안에 전 범위를 훑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가볍게 '내가 공부할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후부터는 바로 단원별 기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데 무슨 별씨 기출 회독을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5과목이나 되는 과목 기본서 전부를 외우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10년~12년 정도의 기출문제 국가직/지방직/서울직만 모아 두어도 정말 많은 문제가 모이는데요. **기출 내용에 대해 OX판별을 하며 10회독 정도 하면 해당 과목에서의 중요한 개념, 빈출 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의 여기까지의 과정을 3개월 내로 끌 냈습니다. 이후에는 **시행처 별 최근 기출 10년을 시험 보는 마음으로 풀어냈어요**. 이 시행처 별 기출도 기본 5회독은 했습니다. 단원별 기출 회독을 10번 넘게 했더라도 시행처 별 기출을 풀 때 느낌이 다릅니다. 단원별로 섞여 있기 때문에 낯선 느낌을 받게 되며, 실제 시험도 단원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기에 꼭 시행처 별 기출도 5회독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과정은 **내가 자주 틀리는 단원을 분석하고, 해당 단원만 기본서 요약서 등을 이용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영역은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독해 20문제, 국어 비문학 10문제, 국어 문학 10문제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양을 정한 뒤, 매일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메가공무원 강사 및 교재

한국사는 정말 전한길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수업의 질을 떠나서 강의 중간중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공시 생활을 버티는데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전한길 선생님의 강좌 중 올인원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처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진 선생님의 교재도 타 사 교재 대비 설명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는데 덕분에 선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인원 기출 교재뿐만 아니라 시행처 별 교재 또한 이해하기 쉬운 해설 덕분에 학습이 용이했습니다.

컨디션 관리는 필수, 아프더라도 회복하려는 마음가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당량의 운동은 필수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공시 생활 도중,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도 해치게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2-3일에 한 번씩 한다면 그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될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체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꼭 하길 바랍니다. 저는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보다는 독서실 가는 길, 일하러 가는 길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 다니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국가직 시험 2주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몸이 아프니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2~3일은 공부하지 못하는 마음에 눈물도 나왔지만,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 벗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 생각하고**, 5일간은 컨디션 조절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들에 비해 빨리 코로나에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공부에 집중해 국가직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

합격 이후, '앞으로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배정된 직무는 비교적 힘든 부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시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낫기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한 층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 무척 신기합니다. 이전에 사업을 운영하던 시절보다 마음도 훨씬 편안합니다. **이 안정적인 삶을 직접 경험해 보니 억만금을 줘도 절대 바꿀 수 없겠더라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하진 않으신가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저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다는 걸 공시 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공시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잠에 들기 전, 오늘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만족감을 매일매일 365번만 느끼게 된다면, 어느새 합격이 손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전국에 계신 모든 공시생 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연고지 근무 30년 보장되는 직업

#교대근무 직장인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공무원 시험 삼시생



[2023 국가직 서울 일행(우정)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6개월

“이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격할 직렬이 아닌
30년 다닐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삼시생이 말하는 '직렬 선택' 조건

저는 사실 공무원 시험 삼시생입니다. 이전에도 공무원 시험(소방직)에 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후 다른 직렬(교정직)에 합격하여 근무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이유**는 비연고지 근무 및 많은 근무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 때문에 '**공무원 시험 직렬 선택**'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한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연고지 근무가 30년 이상 보장될 것
- 둘째, 비자발적 초과근무가 없을 것
- 셋째, 근무하는 공간이 쾌적할 것
- 넷째, 너무 잣은 회식이나 수직적인 문화가 적을 것

기준에 근무하던 직렬은 지역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었고, 비상소집이 잣은 직렬이었습니다. 자다가도 연락을 받으면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환경이 저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서울지역의 일반행정(우정)을 선택하여 준비하게 되었어요.

직장 병행 공시생, 어디서도 못 듣는 꿀팁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모님 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알리는 순간 내 편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병행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업무에 있어서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생활했습니다.**

[직장 병행 수험생 명심할 내용]

- ① 직장에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 ② 담배, 술을 못하는 컨셉으로 회식 등 친목 활동을 줄이세요.
- ③ 퇴근하고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자고 새벽에 공부하세요.
- ④ 자투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공부하거나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 ⑤ 식사도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영양가는 있는 레토르트 식품을 추천합니다.
- ⑥ 냉정하게 전업 수험생보다 많은 점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전업 수험생이 1년 만에 붙는다면 직장 병행 수험생은 2년 만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유희운 선생님의 ‘직장인 공부법’ 영상을 시청하며 마인드 셋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병행 공시생 시간 확보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직장인 수험생은 전업 수험생에 비해 일주일 총 순공시간이 1-2일 가량 부족합니다.(주 6회, 1일 8시간 공부 기준) 그렇기에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공부하였고, 연가와 조퇴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부족한 공부시간을 보충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시간관리에 정말 좋았습니다.

원래 씻는 시간을 개인적인 헬링 시간으로 이용하며 정말 오래 씻곤 했었는데요. 수험 생활할 때는 이 **씻는 시간마저 줄이면서 조금이나마 공부시간을 확보했고, 식사도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영양가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등의 음식을 고려하여 섭취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일을 빨리 마치고 검토를 하는 등 빠르지만 꼼꼼하게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수험생이라 좋았던 점은 월급 날 주식을 사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나에게 주는 선물로 보상해 주며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대근무하며 합격한 시간 관리법은?

저는 교대근무를 하며 일을 다녔고, 근무패턴은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였습니다. 혹은 휴무날 출근을 했었지요.

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저녁 8시에 취침한 뒤, 새벽 2시에 일어나 오전 6시까지 공부하며 네 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야간 출근을 하는 날에는 오전 8시에 기상하여 오후 3시까지 공부 후, 오후 5시에 출근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비번 일은 야간 근무 퇴근 후, 당일은 쉬는 날이었는데요. 즉시 수면을 취한 뒤, 오후 3시에 일어나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휴무일**은 온전히 하루를 쉴 수 있어 최소 9시간 이상의 순공량을 채웠습니다.

어찌 보면 교대 근무 형태라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시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요. 관건은 주간 출근 이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고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번 같은 경우도 교대 근무로 인해 브레인 포그가 심한 상태이니, 무조건 수면을 먼저 취한 뒤 공부했습니다.

실제 수강한 강의 및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하루 공부시간을 6시간 이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날은 볼륨이 큰 행정법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유휘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뒤, 바로 요플을 통해 복습을 하면 4~5시간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황철곤 선생님의 행정학 강의를 들었고, 기출이나 여러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약점이 되는 과목이기도 했는데요.

유휘운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며 광속요트와 모행 강의를 수강할 때 실력이 큰 폭으로 상

승했습니다. 황철곤 선생님의 행정학 강의 역시 다양한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 도움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기출 오마주 500제,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인사혁신처 5개년), 파이널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반면, 하루 공부시간이 3~4시간밖에 안되는 짧은 날에는 공통과목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조태정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듣고 단어를 외웠으며, 혼자 독해를 풀었습니다. 조태정 선생님 강의는 525를 끝 뒤, 강의를 들으면 바로 복습을 하게끔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았으며 독해 500제도 해설이 자세하여 혼자 공부하기 효과적인 교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한국사 기출을 푼다든가 최대한 시간이 덜 드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한국사는 전한길 선생님의 필기노트 강해를 듣고 3.0을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베이스에 따라 전략을 세워라

실제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해 보니, 베이스에 따른 준비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나는 듯합니다. 노베이스 직장인이라면 6개월 정도는 수험에 옮인해 보시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선생님을 믿고 해당 커리큘럼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기 별 학습보다는 제가 잘하는 과목은 감만 유지하는 정도로 덜 되, 약점 과목(행정법) 위주의 학습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쉽게 지칠 확률이 큩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으로 근무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여럿 있고요. 그렇기에 확고한 목표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누리는 평범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동료들과의 관계,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 등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을 테지만 그럴수록 '**내가 이 시험을 왜 준비하고 있지? 붙으면 어떤 베테랑이 있지?**'에 대해 계속 떠올리며 혼들리

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디에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응원해 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직 후 더 나은 조건에서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합격 후, 신용점수가 올랐어요

현재 합격하고 난 후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저 자신에게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증된 직업이기에 신용점수도 많이 오릅니다. 또한 제 스스로 당당해지니 그 당당함이 태도에 녹아들어 나, 주위 사람, 그리고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누구나 도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마라톤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100m 달리기가 되기도 하는 등 시작 지점과 조건에 따라 난도가 다른 시험이 공무원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반 수험생들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도전하는 것이기에 '무조건 더 나은 환경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완주하셔서 좋은 결과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공무원 재시
#신설_의회직공무원
#퇴근 후 공부 시작



“새롭게 선발하기 시작한 의회직 근무가
워라밸도 좋고 연고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2 지방직 일반행정(지방의회) 합격]

총 수험 기간 1년

육아에 적합하여 선택하게 된 교육행정직

저는 기존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며 새로이 선발을 하는데 연고지도 보장되고 워라밸도 좋다고 권유하여 아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부 가까운 성격의 근무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호의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처럼 기존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해당 시험에 도전하며 내가 무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육아 및 직장을 병행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단순 지금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나도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는 오히려 수평이동 혹은 하향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조사를 하였는데요. 의회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력이나 업무 능력 배양 등에 있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론3 기출7 비중으로 실력 쌓기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면 초기에는 기본서 및 기본 강의를 1-2회 반복하며 베이스를 쌓은 뒤, 이후부터는 반복된 기출문제 풀이를 권장 드립니다. 저는 **이론 3, 기출 7 비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기출문제 반복 풀이를 통한 암기 및 패턴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요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감이 오는 시기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김건호 선생님의 행정법 강의를 추천합니다.** 저에게 맞는 강의 방식이었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맛보기 강좌를 들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선생님을 찾아 시작**하기 추천드립니다.

똑심 있게 자신을 지키며 시간을 확보하자

직장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정도 밖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기출문제를 풀었으며, 간혹 너무 피곤한 날은 누워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공부를 하였지만 나머지 6일의 공부를 위해 하루는 쉬면서 체력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를 쉬며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병행 수험생이기에 기본으로 주어진 개인 시간이 적은데 그 안에서 또 시간을 뺏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최대한 시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유혹들을 거절해야 하고 본인의 취미나 활동도 줄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회식 자리를 제외하고는 회사 사람들과 사적인 저녁 자리를 최대한 피했으며, 친구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주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쓸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에 관심과 신경을 줄였습니다. 어찌 보면 **재미없게 사는 것 이 합격 전략**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도전한 결과 훨씬 윤택해진 현재의 삶

직장을 병행하며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예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한 거 멈춰서 뭐 하나’**라고 마인드 셋하며 슬럼프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전 직장과 비교하였을 때 **삶의 질이 훨씬 더 윤택해졌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의 몇몇 장점이 다른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었고, **새로운 경력**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며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저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꿈**을 꾸는 중입니다.

합격생의 마지막 한 마디 **◆ 제 2의 인생을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무원은 어떤 직렬과 기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될지가 천차만별입니다. 기존 직장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나에게 어떤 매리트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후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여 꼭 합격을 성취하시면 좋겠습니다.